

# 취약계층 전기 안전시설 개선 추진

### 전북도, 전기안전공사 등과 협약... 전기적 화재 요인 사전 차단

전북도는 사회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전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전기 안전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도는 21일 도청 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한국전기안전공사 조성만 전북지역본부장, 한국전기공사협회 이재수 전라북도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취약계층의 전기적 화재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시설개선사업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 사업은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협약내용은 도내 취약계층에 대해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 안전진단 수행 및 점검기록부를 작성하고 한국전기공사협회는 콘센트나 차단기 등 세대별 노후 위험시설에 대



21일 전북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취약계층 전기 안전시설 개선사업 업무 협약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조성만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북지역본부장, 이재수 한국전기공사협회 전라북도회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갖고 있다.

한 교체 공사를 시행하게 된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올바른 전기

안전 사용법을 함께 홍보해 나가면서 전기적 화재와 사고 요인을 사전 방지함으로써 편리하고 안전한 일상생활을 누리도록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이날 한국전기안전공사 전라북도회는 회사와 함께 모금한 불우이웃돕기 성금 일천만원을 기탁해 왔으며, 어려운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전북도는 앞으로 시·군과 적극 협력해 수혜대상 가구에 대해 내실있는 사업추진을 통해 지원가구의 만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도내 취약계층의 전기 안전사고 예방과 주거환경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에너지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기자



한국전력공사 남전주지사는 지난 20일 연말을 맞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2023 초록우산 전북 산타 원정대 행사에 봉사단원 100여명이 참여해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했다.

## '전북 산타 원정대' 봉사 나섰다

### 한전 남전주지사, 초록우산 합동 저소득 가정 등 아동 지원

한국전력공사 남전주지사(지사장 조영갑 위원장 서재용)는 지난 20일 연말을 맞아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하는 2023 초록우산 전북 산타 원정대 행사에 봉사단원 100여명이 참석해 사회봉사활동을 진행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 내 저소득가정 및 양육시설 아동들을 대상으로 크리스마스를 맞아 작은 소원을 들어주는 이번 행사는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이 주관했다. 한전 남전주지사 사회봉사단은 산타 선물을 위한 소정의 후

원금 전달은 물론, 선물 포장 과정에도 참여하여 행사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조영갑 남전주지사장은 "추운 연말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인해 힘겨게 살아가는 아동들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지원, 소원을 들어줌으로써 아동들이 조금이나마 밝고 건강하게 자라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앞으로도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책임을 갖고 미래의 주역인 아동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옥기 기자



### 장계농협·제주농협, 자매결연

###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

장계농협(조합장 곽점용), 제주시농협(조합장 고봉주)은 최근 장수군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축산물 직거래 장터 행사를 가졌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제주시농협 하나로마트에서 진행하였으며, 양대 농협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일 평균 1,500여만원의 매출고를 올렸고,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고품질에 대해 지평하고 질 좋은 물건을 접할 수 있게 되어 매우 만족한다는 호평을 받았다.

한편, 제주시농협 대강당에서는 장계농협과 제주시농협의 자매결연식이 있었고, 판매농협 구원을 목표로 상호 유대감 형성 및 협력 강화를 통해 농협의 상생과 발전을 기약하였다.

곽점용 장계농협 조합장은 "제주시농협과 우리농협에서 자매결연을 맺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이번 기회를 토대로 장수군에서 생산된 고품질 농·축산물을 제주시에 널리 알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수=고판호기자

## 전북도 시·군 및 유관기관 일자리 담당자 워크숍 성료

### 내년 전북도 일자리 정책·지원방향 모색

전북도는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21일 아름다운컨벤션 웨딩에서 도내 14개 시·군 및 일자리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운영했다.

이번 워크숍은 구인·구직 지원현황을 공유하고 차년도 일자리 정책에 대

한 우리 도의 대응 방향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도내 100여명의 일자리 관계자가 모여 차년도 일자리 지원에 대한 열띤 의지를 보였다.

1부에서는 △전라북도의 정책과 사업 설명, △전라북도일자리센터의 협

업사례 공유, △애로사항 청취 등 전북도와 기관 간 소통을 통해 도정에 현장감있는 지원 방향을 논의하였다.

또 기관 및 사업 홍보물을 전시하고 배포하는 자리도 마련하여 기관 담당자가 현장에서 실무를 협의하고 토론했다. 네트워킹의 장이 되었으며 참여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2부에서는 2024년 일자리정책과 전라북도의 대응방향이라는 주제로 주무현 지역산업경제연구원장의 특강이 이어졌다.

주무현 원장은 지역간 양극화와 지역 고유의 일자리사업 설계 기초를 전하며, 일자리 관계자들의 역할을 강조했다.

교육에 참여한 일자리 관계자는 "사업 마무리와 후속 사업 운영 준비 시점에 적절한 내용의 워크숍이었으며,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옥기 기자



전북도는 전북도경제통상진흥원과 함께 21일 아름다운컨벤션 웨딩에서 도내 14개 시·군 및 일자리 업무 관계자를 대상으로 워크숍을 운영했다.

## 바이오진흥원,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 최종보고회 개최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원장 이은미, 이하 바이오진흥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해 온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3회에 걸쳐 권역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보고회는 지난 15일 정읍시 공공플러시센터, 19일 임실군 먹거리 통합지원센터, 21일 전북 테크비즈센터에서 각각 권역별 시·군 먹거리 관련 행

정 실무자 및 학교·공공급식센터 실무자, 영양교사 협의체, 로컬푸드 직매장 관계자 등 총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각 보고회에서는 시스템 보고, 시연뿐 아니라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프로그램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김옥기기자



(재)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서 추진해 온 전북 먹거리통합관리시스템이 개발 완료됨에 따라 지난 15일부터 3회에 걸쳐 권역별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 쇼핑몰 '전북생생장터' 상한가

### 농수산물품 온라인 판매 활성화, 매출액 189억·전년대비 2.4배 성장

전북도가 농수산물식품의 온라인 판매 활성화를 위해 운영하는 전북생생장터의 매출액이 지난 8월 100억원을 넘어섰고, 12월 기준 지난해 매출액(78억원) 대비 2.4배인 189억원을 달성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북생생장터의 매출액 급상승 성과 요인은 대대적인 운영방법 개선으로, 입점사 프로모션을 기존 일방적 지원에서 5대5 부담원칙으로 전환해 수혜 입점사를 확대했다.

또한 위탁운영사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이 쇼핑몰의 가장 중요한 입점?정산관리를 주도하고 외부업체는 고객관리(CS)·웹디자인 등 전문적 영역만 관리하도록 했으며, 외부업체사 선정도 입점사 관리가 용이한 전북지역에 한정해 경쟁입찰로 전환하는 등 관리적인 면도 크게 개선했다.

이로인해, 회원수는 전년 대비 35% 늘어난 2만4,694명(올해 12월), 입점업체는 15% 늘어난 411업체, 매출액은 전년도 78억보다 무려 2.4배 증가한 189억원을 달성했다. /김재훈기자

한편, 전북도는 전북생생장터의 지속 가능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선 신규회원 확대를 위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재)전북청우회 등 출향인사 등과 교류를 강화하고 대형마트 오프라인 행사와 연계한 농산물 통합 마케팅을 실시하는 등 신규회원 확보에 이벤트를 마련한 계획이다.

더불어 확장성과 구매력이 큰 전자상거래 제휴업체에 진출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히트상품 발굴을 위해 전북생생장터의 테스트베드 역할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위해 쿠팡, 11번가 우체국쇼핑, G마켓 육선에 이어 최근 공격적인 마케팅을 구사하는 마켓컬리와 쓱닷컴을 추가로 제휴하여 프로모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시군 쇼핑몰과는 특산물 프로모션을 강화하고 타시도(마켓경기) 쇼핑몰과도 제휴강화 하는 등 2024년에는 올해보다 6억 증가한 250억원 매출 달성을 목표로 제시했다.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